

성가소비녀회 (聖家小婢女會)
LITTLE SERVANTS OF THE HOLY FAMILY
www.holyfamily.or.kr

2014년 12월 25일
제3호

강생의 길을 따라

Along to the way of Incarnation



136-80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46, Gireum-ro 9-gil, Seongbuk-gu, Seoul, Korea
Tel 02)940-5800
Fax 02)943-1603

www.holyfamily.or.kr



선교사로 떠난다는 것은
중요하고도 또한 근본적으로 신앙적인 일입니다.
선교사는 강한 인간이어야 하고,
성교회의 제단 앞에서 항상 깨어 있어야 하고 일하며,
고통 받고 기도하며,
그 누구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리스도께 봉헌하는 데에는 휴식이란 없습니다.
사랑이신 그분을 섬기기 위해서는 항상 깨어
사랑해야하기 때문입니다.

(설립자 신부 서한집 1집 13쪽)

- | | |
|------------------------------------|--------------|
| 04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
| 07 선교 지역 소개 : 볼리비아 | 편집부 |
| 14 고정된 하나의 틀이 깨지고 | 허 명서베드로 수녀 |
| 18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 김 로사리아 수녀 |
| 22 하느님께 나아가는 나침반 | 최 글라렛 수녀 |
| 27 Paré Por favor – 세워주세요! | 김 마리비타 수녀 |
| 31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 이 폴 수녀 |
| 34 나아만, 사렙다과부의 기적이 | 이 스테파노 수녀 |
| 38 마드레씨따, 에르마니따! | 김 앙리 수녀 |
| 41 후원 | |
| 42 해외 선교 지역 | |

2014년 제3호

「강생의 길을 따라」 선교지는 성가소비녀회 설립일에 연간 1회 발행하며, 모든 이들과 함께 선교 체험을 나누고자 합니다.

발행처 성가소비녀회 136-802 서울특별시 성북구 길음로9길 46

발행인 차진숙 클레멘스 수녀

발행일 2014년 12월 25일

홈페이지 www.holyfamily.or.kr

표지사진 볼리비아 릴마르 가족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총장 차 클레멘스 수녀

각자의 현장에서 가난한 선교사로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수녀님들,

우리는 모두 선교사로 부름을 받고 기쁘게 응답하였습니다. 이 부르심은 오늘의 시대를 살아가는 소비녀 선교사에게는 인간 존엄성을 훼손하고 신자유주의로 인해 소비주의를 부추기는 세상 속에서 세상을 거슬러 살아가는 새로움의 표징이 될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다양한 소비주의 속에서 개인주의적 불행을 느끼며 살아가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는 안이하고 탐욕스러운 마음과 피상적인 쾌락에 대한 집착과 고립된 정신에서 생겨나는 것이기도 합니다.

설립자 성 신부님은 우리로 하여금 가난한 이들에게 가도록, 그들과 함께 가난하게 살도록 초대하며 파견합니다. 그런데 선교사인 우리의 내적 생활이 자기 자신의 이해와 관심에만 갇혀 있을 때, 더 이상 다른 이들을 위한 자리는 없고 가난한 이들이 들어오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는 강생의 예언적 사명을 구체적으로 살아감으로써 하느님으로부터 멀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생명을 살리는 선교사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온 세상에 가서 모든 피조물에게 복음을 선포하여라” (마르 16,15) 라고 말씀하십니다. 교회 밖, 즉 세상으로 나가라는 것입니다. 예수의 강생 역시 하느님께서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신의 경계 밖, 곧 인간 세상이라는 바깥으로 보낸 것입니다. 하느님의 아들인 예수는 현대인들, 특히 가난하고 고통 받는 모든 사람의 기쁨과 희망, 슬픔과 고뇌를 함께 하라고 우리를 교회 밖으로 파견합니다.

교종 프란치스코 역시 밖으로 가도록 우리에게 권고합니다. 복음의 기쁨 45항에서 오늘날 복음화는 언어와 환경의 제약을 받고 있으며, 복음화는 구체적인 환경에서 복음의 진리를 효과적으로



소통시키는 길을 찾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선교의 마음은 이 한계를 아는 것이며, 스스로 “약한 이에게 약한 사람이...

모든 이에게 모든 것”(1코린 9,22)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의 마음은 결코 스스로를 가두어서도, 자기의 안전지대로 피해서도,

완고함과 방어책을 채택해서도 안 됩니다.

선교의 마음은 복음을 나름대로 이해하고,

성령의 길을 식별하면서 성장한다는 것을 인정하며,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것입니다.

비록 그 과정 중에 신발에 거리의 흙이 묻더라도 말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선교하는 제자로서 우리는 매 순간 식별하며 열린 삶, 경계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선교 영성은 경계의 영성, 즉 국경의 영성입니다. 경계는 양쪽을 나누는 선을 뜻합니다. 경계는 분할하는 장소로 고유한 언어와 역양들이 뒤섞이는, 세계의 풍습과 전망들이 교차되는 계속적인 교류의 장소입니다. 경계에서는 이 지역 또는 저 지역의 사람이 아닙니다. 경계는 많은 힘의 통교가 있고, 항상 위험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국가들·지역들 간의 관계가 악화될 때 그곳에는 투쟁과 공격, 침략 등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모든 사람들은 경계에 사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경계는 하나의 상황이 되기도 합니다. 편리한 복지와 소외, 특권과 가난 사이에 구분된 지대를 표시하기도 하는데 마치 강남과 강북을 나누듯이 말입니다. 경계는 다른 종교들의 현실로부터 나의 그리스도교의 현실을 나누기도 합니다.

경계 이쪽에서 일관성, 밝음, 가족적 분위기를 발견할 수 있다면 반대로 저쪽의 다른 이들의 역사와 그들의 의미들이 우리로 하여금 응집력이 없고 혼란과 무관한 상태에 직면하게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경계 이쪽에서는 받아들여짐을 경험하고, 모든 것이 보다 쉬우며 합리적이고 자연적이라면 경계 저쪽에서는 오직 인내만을 경험하게 되며 세상이 더 어렵게만 느껴질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경계, 즉 국경을 통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단지 근본적인 생존에 관계되는 책임이 없는 여행객으로서 통과하는 것을 좋아합니다. 적은 수의 사람들만이 자기의 국경, 즉 경계 너머에서 발전하고 성장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며 살아갑니다. 따라서 경계는 하나의 선택이며, 선교사의 선택은 낮은 땅에서 복음을 살기 위해 경계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경계의 사람은 종의 신분을 취하기까지 스스로 낮추신 하느님의 아들처럼(필립 2,7) 문화, 종교, 지역교회의 고유한 경계들 저 쪽으로 가는 파견의 위임을 받아들이는 사람입니다. 이것은 영성적 의미는 물론, 물리적 의미도 포함하는 것입니다. 경계의 영성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교 공동체와 다른 종교를 가진 민족들 사이에 그들을 위한 교회의 목소리로 존재하기 위해서, 그리고 교회를 위해 그들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 하나의 다리(橋梁)로써 살아야 합니다. 다리는 서로 다른 두 문화 간의 접촉을 위한 역할을 하는 것이고 선교사는 하느님의 사랑의 관점에서 출발하고 모든 문화를 초월하여 열린 인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경계 저 쪽으로 가셨기에 선교사입니다. 예수님은 경계도, 담도, 소유도 없었습니다.(마태 12,48-50 ; 8,20) 우리는 닫혀있거나 철저한 방어책으로 접근할 수 없는 경계와는 거리가 먼 것이 좋습니다. 닫혀 있는 것은 생명이 없음을 의미합니다.

선교사 소비녀들은 선교지의 단체들, 사람들과 연대하며 협조자로서 겸손하게 걸어가야 할 것입니다. 선교사는 세상을 향한 개방된 선교 의식의 전환이 필요하며 선교지의 상황을 식별하고 들을 줄 아는 성숙함을 지녀야 합니다.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던 예수님은 참사람이시며 인간에 대한 하느님 사랑의 증거이셨습니다. 우리가 어디에 있는지 죽음과 부활로 새로운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예수님 제자됨의 기쁨을 열정적으로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선교지의 체험들이 우리 안에 생명이 넘치는 역동성으로 살아 움직이고 주위로 퍼져나가기를 희망하며 그 선교 여정에 함께 해야 할 것입니다.



공식 명칭 : 볼리비아 공화국
위치 : 남아메리카 중서부에 있는 내륙 국가
수도 : 행정 수도 - 라파스, 사법 수도 - 수크레
인구 : 10,461,053명(2013)
언어 : 스페인어(공식)
 케추아어(부족어로 가장 많이 사용) 외 30여 개의 부족어
종교 : 빠차마마 무속신앙의 바탕 위에 가톨릭, 개신교 등
정체 · 의회형태 : 중앙집권공화제, 다당제, 양원제
기후 : 아열대성 기후, 열대성 기후, 온대성 기후



01 뽀뜨시의 전통춤(추수 때)

볼리비아는 전통적으로 고지대 국가로 여겨졌다. 국토의 1/3 정도가 안데스 산맥에 자리하고 있지만, 대부분의 대도시들이 그 지역에 발달되었다. 수백 년 동안 고지대 도시들은 광업·상업·사업의 중심지 역할을 해왔지만 20세기 후반에 산타크루스를 비롯한 동부의 저지대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인구와 경제면에서의 변화가 일었다.

볼리비아는 화려한 역사를 가졌다. 한때는 고대 티아우아나코 제국의 중심지였고, 15세기부터 16세기 초까지는 잉카 제국의 일부였다. 신대륙 정복자들의 상륙 이후, 볼리비아는 남아메리카 식민지 대부분을 포괄하는 페루 부왕령에 편입되었다. 이 식민통치로 많은 양의 은을 스페인에 제공했으며 스페인이 막대한 부를 축적하는 데 기여했다(브리태니커).

볼리비아에서 성가소비녀회가 시작된 배경

아르헨티나에서 선교를 하면서 주변의 가난한 지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강생의 영성이 구체적으로 실현될 수 있는 곳으로 눈을 돌리게 되었다.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싶은 열망이 커지



02 오루로의 전통 복장

면서 더 번두리 지역을 물색하고 있을 즈음에 주위 선교사들의 대부분이 볼리비아를 추천해 주었다.

여러 의견들을 종합하여 볼리비아를 선교 지역으로 선정하게 되었지만 이곳에 대한 사전지식이 없었으니 막연하기만 했다.

먼저 볼리비아 주교님들께 우리의 영성을 알리는 메일을 발송하였는데 오루로, 안포니오, 까미리 교구 주교들로부터 답장이 왔다. 이에 힘을 얻어 2009년 11월 4일부터 16일까지 사전 답사를 위해 주교를 만나고 지역 조사를 시작하였다. 갈렙과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떠난 심정으로 오직 우리의 강생 영성을 필요한 곳이라면 가겠다는 믿음이었다. 새로 시작한다는 두려움, 낯설음과 함께 실패하면 어쩌나 하는 걱정도 있었지만 성가소비녀회를 뿌리내리기 위한 사명감의 열정이 우리를 이끌어 주었다.

현지의 선교사로서 누구보다 우리의 마음을 백배 이해하는 많은 선교사들은 처음 보는 동양 수녀에게 친절히 대해주고, 숙식 제공뿐만 아니라 우리를 축복해 주면서 함께 살기를 청하였다.

우리가 답사했던 지역을 살펴보면, 첫 답사지는 투피사르쎄 탄광지역이었다가 폐광되면서 인구



03 오루로 성당의 성모상
04 산 홀리안 안토니오 주교
05 볼리비아의 날



가 줄고 현재는 관광지로 이용되고 있으며 구속주회 폴란드 사제들, 그곳의 수녀원들이 활동하여 충분히 사목이 가능하다.

회색도시인 오루로는 고산지대라서 건강의 위험이 크게 다가왔다. 관할 주교도 존재 사도직으로써의 역할만이라도 요구하였고, 여러 상황들이 적합하다는 생각도 들었으나 첫 공동체로서 부담이 되었고 지원자가 있을까? 하는 의구심도 있어 접을 수밖에 없어 마음이 아팠다. 최남부 도시인 비자손은 너무 먼 지역이고 거리상 연결 소식통이 어려운 곳이었다. 해발 2,500m의 지점에 있어 기후가 좋은 중심도시 꼬차밤바는 많은 수도회가 있고 주변 빈민 지역과 산악지대에서 수도자를 필요로 하고 양성과 미래를 위해 필요한 지역으로 보았다. 포르핀은 홍수가 범람하여 물에 잠긴 적이 있고 강 옆이라 위험성을 안고 있다. 그리고 끈집시온 교구의 뿌에스또와 산타크루스 교구의 산 홀리안 지역을 답사하였다.

뿌에스또, 산 홀리안 공동체 시작

여러 지역의 답사를 통하여 산 홀리안과 뿌에스또로 의견이 모아지면서 볼리비아에서의 성가소 비녀회의 기운이 싹트게 되었다.

2010년 3월 11일, 성가소비녀회의 첫 공동체는 산타크루스 대교구의 뿌에스또 지역에 세워졌다. 정식 주소는 페르난데스 알론소이다. 정글 지역이었는데 뿌에스또 군대가 정글을 개간하면서 마을이 형성되어 그대로 마을 이름이 되었다. 이곳은 17년간 콜롬비아 까푸친 수녀회가 사목하고 있었는데 회원 파견이 어려워지면서 2009년 12월 30일에 철수하게 되었다. 우리가 새로이 공동체를 찾는 시기와 맞물리게 되었고 사전 조사 방문 중에 그곳 수녀들과 면담을 통해 다른 문제가 없음을 알게 되었으며, 마을 사람들도 떠나는 수녀들에 대한 슬픔에 잠겨 있던 터라 우리 수도회가 들어올 것을 오히려 간곡히 부탁하였다.

또한 관할 에스타시오 주교와 면담 후에 그들의 요청을 받아들여지게 되면서 볼리비아에서의 첫발을 내딛게 되었다.

초등학교 어린이들의 환영 춤, 어른들의 전통춤, 음식을 접대하는 그들의 모습 속에 우리와 살고 싶어 하는 열망과 우리 마음 속에서 끓어오르는 열정이 만나는 역사적인 순간이었다. 집없이 돌아다니던 서러움(?)을 벗어나 성가소비녀회 트랙 안에서 지낼 수 있다는 것에 대한 행복감에 젖은 첫 날을 결코 잊지 못할 것이다.

뿌에스또

1) 위치

국제공항에서 1시간 30분 걸리며 시외 터미널에서 2시간 30분 소요되는 농촌 지역이다. 교통편은 시내에서 수녀원까지 자주 운영되고, 사탕수수과 농작물 운송 트럭의 왕래가 잦은 도로인데다 해가 지면 가로등이 없어 사고의 위험이 많은 곳이다.

2) 기후

고온 다습의 열대성 기후로 겨울이 짧고 30~40도를 웃도는 날씨가 대부분이다. 1월은 우기로 비가 많이 온다. 습기가 많고 더워 열대성 작물로 망가, 그레이, 나랑하 등이 집집마다 많아 인심이 후하고 지역 특산물인 망가는 11월이 되면 온 동네에 가득하여 망가 동산을 이루게 된다.

3) 직종

주로 농업에 종사하며 쌀, 콩, 팥, 땅콩, 사탕수수, 채소류 등을 재배한다. 주변에 3m 이상의 사탕수수가 많은데 가난한 사람들은 여기서 하루 일하며 노동의 품값을 받는다. 농사 지역이라 쌀한 봉지, 땅콩, 설탕 등을 나눠 먹는 일이 자연스럽고 집에서 재배한 과일도 함께 나눈다. 마을 사람들이 가져다 주는 쌀은 우리의 주식을 해결하고, 떨어졌다 싶으면 인심 좋은 방앗간 주인이 쌀 반 자루, 한 자루 등을 나누어 주곤 한다.

4) 경제

우리나라의 50년대 수준으로 산업 발달이 부진하여 경제 사정이 낙후되어 농사일에만 충실하다. 초등학교 창문의 유리창이 없는 것은 기본이며 건물과 책·결상은 낡아 적합하지 못하나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시내로 나가 공부하는 경우가 많아졌지만 대부분은 고등학교까지 이곳에서 보낸다. 병원 이용은 비용이 만만치 않고 국민의료보험이 없어 대개 약국을 이용하고 있다. 언젠가 어느 집에 불이 났는데 한참 뒤에 소방차가 왔으나 소방호수가 없어 다시 돌아가고 그 뒤로 돌아오지 않는 상황이 벌어졌다. 결국 주민들이 양동으로 물을 날라 불을 끄기도 하였다. 또 도둑질한 청년을 태운 경찰이 천천히 달리자 오토바이에서 뛰어내려 도망을 가기도 하고, 대량의

06 뽀에스또 본당 축일



총을 손에 들고 오토바이로 운송하기도 한다. 강에 다리 놓는 기술이 없어서 한국의 건설회사에서 세워 주고 대부분의 공산품을 수입에 의존한다.

5) 인구

약 5,800명이다. 3개 초등학교, 1개 고등학교, 작은 병원이 있고 개신교가 많이 들어와 있다. 성격이 친절하여 꼬차밤바 사람들이 많이 이주한다. 고산 지역 스크레, 뽀또시에서도 계속 이주하고 서로 특성이 달라 가끔 충돌하기도 한다. 언어를 모르는 이가 대부분이며 교리 교육도 전혀 안되었고 결혼 비용이 많이 들고 파티가 며칠 동안 계속되기에 가난한 이들은 혼배하지 않고 그냥 살고 있다.

산 홀리안

산 홀리안은 국제공항에서 2시간 3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뉴플레오 차베스 준교구 소속이고 안토니오 주교 관할이다. 고산 지대에서 내려온 사람들로 이루어져 성격이 거칠어 사건과 사고가 많고 도로 점거, 데모 등이 과격하며 대통령 예보(Evo)의 지지자가 많고 정치성이 강하여 많은 사람들이 위험하다고 공동체 세우는 것을 반대하기도 하였다. 학교에 있는 스페인 수녀는 건물 안에서만 일을 했기에 그들의 존재조차 모르는 사람이 많았고 때론 주례 사제 혼자 미사를 드리는 경우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또한 안토니오 주교는 이곳이야말로 우리의 영성과 성가정의 사랑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공동체 세우길 바라셨다. 이런 이유 등으로 새로이 분원을 신설하는 것에 대한 별다른 이견이 없었기에 우리의 의지로써 두 번째 공동체를 시작하게 되었다.

폴란드 교구 사제 2명, 볼리비아 사제 1명이 본당과 공소를 맡고 독일인 은퇴 신부가 20년을 헌신하고 지금은 선교 이야기를 책으로 발간하기 위한 편집 작업을 하면서 지낸다. 은퇴 신부 주택 뒤, 임시 거처에서 초창기 수도 공동체를 떠올리며 웬지 모를 설레임과 자부심도 지니게 되었다. 수녀의 존재도 모르고, 지나쳐 가던 사람들이 우리의 방문을 통하여 성당을 찾아오거나 만나면 반갑다고 달려오기도 하였다. 신자수의 증가로 신부와 주교들은 흡족해 하였으며 주말에는 신부와 함께 공소를 방문하면서 차츰 사람들의 마음이 움직이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삭막하고 거친 이곳에 성가정의 사랑이 조금씩 자리 잡기 시작하였다.



01

01 가정 방문

고정된 하나의 틀이 깨지고

이태리 엠블리
허 명서베드로 수녀

내가 이곳에 온지 3년을 훌쩍 넘어 벌써 4년을 눈앞에 두고 있다. 우리 수도회가 이태리에 진출한지도 벌써 올해로 17년째로 접어들면서 4~5년 주기로 소임이 바뀌었으니 이곳을 거쳐 간 수녀들도 적은 수는 아닐 것이다. 처음에 이곳에 오기 전 선교사로서 이상(理想)이라 할 수 있는, 그렇지만 나름 커다란 포부(?)를 가졌던 것이 떠오른다. 지금 생각하면 외국인과의 관계가 거의 없이 살던 터라 더 그런 생각이 들었으며 아마도 우리와는 정서적으로 많이 다를 것이라는 상상 때문이 아닐까

싶다. 그러나 막상 이곳에 와서 보니 나의 예상, 상상은 너무나도 쉽게 무너져버렸다. 도착한지 얼마 안 되었으니 겨우 인사말만 건네고 알아들을 수 있는 정도였는데 바로 그 순간에 우리나라 할머니들에게 볼 수 있는 정을 느낄 수 있었다. 채소 하나라도 더 챙겨주시려고 하는 모습들이 마치 시골 본당 할머니들의 모습과 흡사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곳에서의 생활은 외국이라기보다 우리나라 시골 본당에 소임 간 것처럼 그리 낯설지 않게 시작되었다. 물론 말을 제외하고는.

언어는 꾸준히 노력하고, 시간이 지나면 능숙해질 거라는 낙관적인 생각으로 그리 걱정은 하지 않았던 것 같다. 지금도 만족하지는 않지만 언어의 한계에서 오는 불편은 그리 크게 다가오지 않은 것에 대해 감사하는 마음이다. 여느 본당처럼 소임을 하고 난 후, 현재는 방문사도직을 하면서 그분들의 어려움을 들어주고 고통을 함께 아파하며 지내고 있다. 방문하는 동안 심혈을 기울여서 듣다보면 어느새 동화되어 온몸이 저려움을 느끼고 기도와 주님께 매달림 없이 살수 없는 나의 한계를 절실히

아주 절실히 깨닫게 된다.

방문을 하기 전에 주님께 도움의 기도를 청하고, 방문 후에는 주님께서 이들의 고통을 덜어주시리라는 간절한 기도와 더불어 감사기도를 잊지 않게된다. 간혹 나의 말 한마디가 위로가 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님의 일꾼으로 사는 내가 얼마나 신앙으로, 영·육으로 건강해야 되는지를 깨닫게 된다. 건강하지 못한 내모습은 그냥 가벼움으로 스쳐지나갈 것이고, 주님 안에서 굳건하면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체험했던 적이 한 두 번이 아니다. 오히려 이들을 도와주기 보다는 하느님께서 나를 더 튼튼한 당신의 도구로 삼고, 내 신앙을 튼튼하게 하시고자 마련한 장(場)이라는 생각이 드는 것은 주님의 손길이 함께 하심을 느꼈기 때문이다.

조금씩 나의 부족한 부분을 보게 되었다.

내 안에 꿈꿨던 숨어있어 나 자신도 찾을 수 없었던 부분을 이곳에서 발견하게 되면서 솔직한 나의 모습을 인정하고 정화될 수 있도록 주님께 의탁하고…….

이처럼 나를 성숙하게 이끄시는 주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기에 영의 눈을 뜰수있도록 계속 시도하고 더욱더 주님께 가까이하려는 나를 발견하게 되었다. 가난한 사람들, 독거노인들이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는 우리나라와 별반 다르지 않다. 오전에 가난한 집 방문하고, 오후에는 거의 아바네 이웃을 방문하고 있다.

몸이 아프다보니까 집 밖에도 못나가는 형편이라 누군가 방문하지 않으면 늘 혼자 있어야 하기에 우리의 방문은 그분들에게 말의 줄기가 붓물처럼 쉬지 않고 쏟아져 나오는 시간이 된다.

수녀라는 신분 때문에 전적으로 믿고, 고민을 말씀하거나 마치 신앙고백처럼 자신의 힘든 처지를 털어놓으시는 것을 보면서 앞서 언급했지만 “내가 주님 안에 똑바로 서있지 않으면 정말 안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다시금 하게 만든다.

오후에 걸어서 방문을 하다보면 길에서 만나는 이웃들이 적지 않다. 그들과 몇 마디에 불과하지만 서로 대화를 하게 되고……. 이런 날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어느 순간 이것이 “걸어다니면서 할 수 있는 사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다보니 전에는 주로 자전거를 많이 타고 다녔는데 아주 먼 곳을 제외하고는 이 방법을 선택하게 되었다.

올해 초에 집집마다 가정축복을 하기 위해 신부와 함께 방문하고, 적극적으로 찾아다니게 되면 많은 수의 방문자가 생겼다. 그래서 공동체 수녀 3명이 모두 참여하여 일주일씩 가정을 바꾸어가면서 방문하고 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가까운 병원에 봉사차원으로 미사 참례를 하는데 더 많은 이웃들을 알게 되고, 우리 아바네 옆 동네의 산타마리아 성당에 매주 토요일마다 특전미사 반주와 성가를 하며 이웃들과의 친교의 폭을 넓히고 있다. 그리고 2년 전부터 다시 어린이 교리반 봉사받을 맡아 한 달씩 돌아가며 어린이들과 함께



02 미사 전
03 3학년 교리반



하니 대상만 다를 뿐 우리나라의 여느 시골 본당의 활동과 크게 다를 바가 없었다. 올해 우리 본당 첫영성체 어린이 대상자는 12명이다. 작년까지만 해도 천방지축이었던 어린이들이 점잖아지고, 교리교사 말에 귀 기울이고, 의젓하게 질문을 하는 등 그들의 변화하는 과정을 지켜보며 한없이 이뻐 보이고 대견해 보인다. 또한 지속적으로 만나게 되면서 교리에 누가 참석하는지에 대한 여부를 파악하게 되고 그들도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 좀더 부드러워지고 친근하게 느끼고 있음을 알게 되었다. 이곳에서 생활하면서 ‘나는 선교사’라는 생각이 희박해지고 오히려 남의 나라 같지 않은, 내가 전부터 계속 살고 있었던 듯한 착각이 들

때가 더 많다. 이는 세상 어디나 타고난 본성은 비슷하다는 체험을 한데서 온 연유일 것이다. 물론 관습, 풍습 이런 많은 것들의 다름은 있다. 그래도 인간으로서의 근본, 신앙의 바탕 등이 나라와는 무관하다는 것과 지금까지 살아온 경험들이 동질감을 유발시키기에 선교사라기보다는 하느님께 봉헌된 수도자라는 것에 머물게 된다. 따라서 내가 가지고 있던 선교사라는 틀이 과감히 깨지고 있는 것을 보며 내심 나쁘지 않다는, 기쁘다는 생각을 한다. 이렇듯 고정된 하나의 틀이 깨지고 또 다른 틀이 자리를 잡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바람직한 성령의 바람을 불어넣어 주셨다는 믿음을 갖게 된다.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볼리비아 뿌에스또
김 로사리아 수녀



어느덧 볼리비아에서 생활했던 3년이란 시간이 훌쩍 지났습니다. 1년이 지난 어느 날 폴란드 신부에게 스페인어로 떠들떠들 고해성사를 보면서 언어의 어려움 때문에 많이 힘들고, 기쁘지 않다고 했더니 3년이 지나면 괜찮아질 것이라는 위로의 말씀을 들었지요. 그 말씀이 아직도 생생한데 벌써 3년하고도 6개월이 되었습니다. 더위와 모기 때문에 아직도 잠을 청하기 어렵고, 모기에 물린 자국으로 상처투성이의 다리가 되었지만 처음처럼 투정 하지 않고 “아! 이게 선교 왔다는 증표지!”하며 오히려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도마뱀이 갑자기 나타나거나 빨래터에 커다란 개구리가 큰 눈을 부릅뜨고 주인인양 바라보아도 이제는 놀라지 않고 오히려 “또 놀러 왔구나” 인사를 하며 미소 지을 수 있는 여유로움을 갖게 된 것입니다. 시간의 흐름은 이렇게 이곳의 만물들과 하나하나 정들어가고 적응해가게 합니다.

작년 4월 12일 별 소동으로 뚫어진 성당 지붕은 1년이 지나도록 수리되지 않아 성당에 들어갈 때마다 그때의 놀람과 아픔이 되살아나고 있습니다. 사고가 난 뒤에 여러 곳에서 기부를 하여 지붕 덮을 스텐트 4장이 들어왔지만 사람이 떨어진 사고로 인해 선불리 나서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다른 사고가 날까봐 걱정도 되고 워낙 시골이라 안전장치를 갖추고 수리를 할 만한 사람은 물론 기관도 없었던 것입니다. 시내에서 건축기사를



부르면 그 비용이 터무니없이 비싸 엄두를 낼 수가 없었습니다. 12월 성탄이 가까워진 어느 날 어느 돈 많은 과부가 지붕을 덮는데 필요한 비용 뿐만아니라 수리할 사람도 보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원 받은 스텐트가 성당 지붕의 규격과 달라서 덮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17년 전에 지어진 성당인데 그때 사용했던 스텐트를 이제는 생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기뻐했던 마음이 한 순간에 사라지면서 시내 여기저기서 찾아보았지만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축일 즈음에는 일하지 않고 즐기는 남미 사람들이라 성탄을 그렇게 지내고 새해를 맞았는

데, 그 때부터 비가 내리기 시작하였습니다. 비가 내리면 스텐트는 종이 박스처럼 되어 쓸 수가 없습니다. 워낙 1~2월이 우기라 비가 내리는데 올해는 어쩌나 비가 많이 내리는지 하루도 빠지지 않고 거의 매일 비가 내렸습니다. 작년에는 너무 가물어서 고생했는데 올해는 홍수가 나서 여러 지역이 잠겼다는 보도를 자주 접하게 되었고, 마을 사람들도 논이나 밭이 물에 잠겨 농사를 망쳤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자연을 존중하지 않은 탓이기에 누구에게도 원망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다만 우기가 끝나는 3~4월까지 기다려야 했습니다.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 모두

포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한 형제가 성목요일에 시간을 낼 수 있다고 하면서 사다리와 양철 등을 가지고 성당에 왔습니다. 이렇게 모든 것을 포기했을 때 하느님께서 사람을 보내주셨고 지붕을 수리하게 되었습니다.

뚫어진 지붕으로 비둘기를 비롯하여 온갖 종류의 새들이 들어와 집을 짓고 새끼를 낳는 바람에 깃털과 새똥까지 청소하느라 힘들었지만 주님께서 부활 선물을 주신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누구보다 기뻐한 사람은 일주일에 두 번 성당 청소를 하러 오는 헨리 가족이었습니다. 비둘기 배설물이 바닥에 떨어져 말라버린 것을 긁어내느라고 여간 진땀을 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4월 19일, 성토요일 미사 중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지만 우리는 걱정 없이 부활 성야미사를 할 수 있었습니다. 참으로 우리 모두에게 값진 부활선물이었습니다. 지붕에서 떨어진 웨데리고 형제도 조금씩 걸을 수 있게 되었고 다친 허리도 거의 나아져 생활하는데 무리가 없는 상태까지 되었습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그리고 후원해 준 수녀님들에게 감사의 마음 전합니다.

그렇게 고민하던 문제가 말끔히 해결되자 저희에게 또 다른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재작년부터 건진 교리가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고, 작년부터 첫영성체 교리도 1년에서 2년으로 연장되어 교리 교안을 다시 준비해야 하고 교리 교사와 교실도 더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교리 교실이 없어 근처 초등학교를

빌려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학교가 작년 11월에 재건축에 들어가 사용할 수 없게 되어 다른 학교로 교리 교실을 옮겨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학교보다 먼 거리에 있어서 교리 교사와 학생들은 가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나마 12월 방학 전까지 성당 안에 옹기종기 모여 교리를 하였지만 올해부터는 새로운 첫영성체 어린이들이 들어와 멀어도 이용할 수밖에 없게 된 것입니다. 성당 뒤뜰에 커다란 공터가 있는데 정식으로 성당 땅이라는 서류가 없어서 교리실을 짓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동안 서류를 만들기 위해 많이 애를 썼지만 절차가 얼마나 복잡한지 아직도 끝나지 않은 상태입니다. 모든 것이 잘 해결되어 새로운 곳에서 교리 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느님은 저희의 모든 소원을 마치 당신의 소원처럼 다 들어 주심을 저는 압니다. 선교사로서 제 삶이 부족하고 합당하지 않더라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저희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선교사로서 생활하면서 더 깊이 느끼게 해주십니다. 아직은 언어가 부족하여 간신히 첫영성체 교리를 하고 있지만 언젠가는 청년들을 대상으로 하는 견진 교리도 할 수 있게 되기를 희망합니다. 그곳에는 하느님을 찾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인생의 참된 행복은 '사랑하고 사랑받는 것이다.' 라는 말을 떠올리며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자 했던 이들에게 사랑받고 있음을 느끼며 참으로 선교사로서의 작은 기쁨, 행복을 느끼게 해 주시는 하느님께 감사합니다.



하느님께 나아가는 나침반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최 글라렛 수녀

선교는 저를 돌아보는 여정이며 하느님께 나아가는 좋은 나침반입니다. 그 길 안에서 주님의 현존을 느끼고, 그들 안에서 주님의 은총을 함께 나눌 수 있기에 선교로 초대받은 사명은 특별한 부르심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매일의 삶이 소중한 체험이었고 하느님과 만남의 시간이었습니다.

어느 날, 농사지은 콩과 채소류를 봉지 봉지 싸들고 온 할머니의 거친 손이 친엄마의 사랑으로 가슴 찡하게 다가왔습니다. 온통 얼굴에 벌들이 덮쳐 벌침으로 값비싼 류마티스 치료를 시험하기도 했고, 페데리코가 성당 지붕에서 떨어져 병원에 실려 갔을 때 키 작은 80세 어머니가 저를 붙들며 울부짖을 때에 제 할머니의 고통을 보는 것 같이 같이 울었습니다. 10시간의 힘든 수술을 마치고 나오는 페데리코의 딸이 울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저 또한 딸의 입장이 되어 아픔을 함께 하였습니다. 한 국에서 총장 수녀, 디모테오 수녀가 이곳에 방문하였을 때 민속 축제를 벌이면서 마치 대통령을 맞이하듯 환호하며 함께 음식을 나눌 때는 자식 잘 낳아 자랑하고 싶은 엄마의 마음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볼리비아는 스페인어가 기본어이지만 30개 이상의 부족어가 있고, 70%가 산맥으로 둘러싸여 있어 빈부의 격차, 교육의 수준 차이가 심합니다. 부모들이 일터로 나가면 형제들이 동생을 돌보거나 거리에 갇힌 아기들이 방치되어 많은 아이들이 영양·안전·교육의 결핍에 처해 있습니다. 비루비루 공동체는 도시 근교지역의 부모들이 아이들을 돌보지 못하고

있는 현실 상황에서 탁아소의 필요성을 실감하게 되었고, 가난한 지역과 가정을 돌보기 위한 교회의 시급한 요구와 우리 수도회의 강생의 영성을 실현하고자 하는 원의가 하나 되어 호세 탁아소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이탈리아 호세 신부에 의해 탁아소 건물이 마련되기는 하였지만 신병 치료를 위해 출국하시고 자리를 비우게 된 1년여 동안 건물은 방치되어 다시 수리하느라 새로 집짓는 건 만큼 경비와 노력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탁아소의 시작은 전기를 끌어오는 일이 우선이었습니다. 그냥 들어가 살려고 하였으나 주변이 밀림지역이라 위험했기에 전기회사 쫓아다니고, 전기 계량기 설치하느라 한 달이 지났지요. 전기가 들어온 날, 얼마나 기쁘던지...

그렇게 쉽게 접하던 전기가 이렇게 고마운지 온 몸으로 체험한 시간이었습니다.

지금은 천정에 금이 간 곳을 메우고, 비가 새는 틈은 막고, 수로 공사를 했는데 여전히 비는 조금씩 새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뛰어 놀아야 할 땅이 너무 낮아 모래와 흙을 메우는 작업과 잔디를 심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작업은 집집마다 방문하여 어린이들 실태를 파악하고, 동네 주민들과의 친분을 쌓으며 탁아소 홍보를 하는 일이었어요.

탁아소 개설을 위해 돌봄이 필요한 가정, 지역 조사를 서둘러야 했습니다. 또한 볼리비아의 탁아소 시설이 낙후 되었지만 그들의 교육과 문화를 알아야했기에 여러 장소를 견학하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아이들 식비와 교사 인건

비 등 지원 받을 경로를 찾아다니고, 복잡한 서류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이 커다란 숙제였습니다.

마치 처음 볼리비아에 도착하여 정착하기 위해 이리 저리 뛰며 동분서주했던 그 상황으로 돌아간 듯 함에 앞이 캄캄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완전한 것 보다 준비되어 가는 과정 안에 역사하시기에 그 때마다 천사들을 보내주셨지요. 비워 있는 탁아소라 작은 것 하나까지 준비해야 하는 상황이지만, 아무것도 없는데서 마련해주시는 하느님의 선물을 체험하였기에 걱정하지 않습니다.



그림에 소질 있는 엄마가 교실마다 예쁜 그림을 그려주었고, 젊은 여의사는 탁아소 대문 벽카드에 아이들이 좋아하는 그림으로 채워주었습니다. 현관문 왼쪽에는 산타크루스 대교구 소속, 오른쪽에는 성가소비녀회 문구, 소비녀 3명의 그림은 보는 이로 하여금 웃음을 짓게 합니다. 이렇게 하나씩 하나씩 준비하면서 비루비루 탁아소는 2013년 10월 4일 드디어 첫 문을 열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연령대는 2~5세이고, 아침 7시 30분에 시작하는 문이 열립니다. 아직 잠에서 덜 깬 아이들 씻는 것부터 교육하고 아침식사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기저귀차고 젖병 들고 오는 아이부터 "PiPi" "빠빠" "쉬 마려" 등 그들의 소리를 잘 알아들어야 고생을 덜하게 되지요. 두 살부터 교사들과 함께 연령별 수업이 진행되고, 맛있는 점심식사 이후에는 낮잠과 오후 활동 수업, 간식, 5시에는 집으로 돌아가지요.

요즈음 고민거리는 탁아소 주변의 집에서 소를 놓아기르는데 그 소들이 탁아소 앞에 있는 풀을 먹고 배설을 하는 것입니다. 아이들이 다니는 길목이라 밟을까 걱정이고, 모기나 파리 등의 문제뿐 만아니라 그 냄새로 인한 피해로 소 주인과 협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 날 대문을 여는 순간 거대한 소들이 편안하게 잠을 자고 있는데 쫓아 보내기는 커녕 한참 바라보았습니다. 멋진 풍경이었죠!!

프란치스코 성인의 자연 사랑과 가난함을 따르고자하는 비루비루 공동체는 성인의 강복으로 호세 탁아소가 빛이 되고 길잡이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소비녀들 발걸음마다 기쁨이 넘쳐 성가정의 사랑이 가난한 아이들과 전 세계를 향해 해맑은 구름을 타고 성 신부와 모든 수녀들의 기도로 전달되어 모두가 행복하길 소망합니다.



Paré Por favor – 세워주세요!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김 마리비타 수녀

볼리비아에서 서민들의 교통수단은 '뜨루피'로써 중국이나 일본에서 중고로 수입한 봉고 또는 우리나라 카니발 같은 자동차이다. 처음 뜨루피를 타고 다닐 때 참으로 서민들의 교통수단이 초라하다고 생각이 들었다. 비가 오면 도로가 포장되지 않은 모랫길이라 움푹 패어서 자동차들이 다니기에 여간 힘든 것이 아니었다. 때로는 패인 곳에 바퀴가 빠져 나오지 못한 채 곤욕을 치르기도 한다. 그제야 봉고들이 열심히 다니는 이유를 알게 되었다. 시골의 작은 길, 울퉁불퉁한 길도 거침없이 다녔던 봉고야말로 이들에게 필요한 교통수단이라는 것이 당연하고, 그 사실에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일상생활 안에서 늘 우리와 함께하는 뜨루피를 통해 볼리비아 선교지에 대한 소개를 하고자 한다.

에피소드 1

탁아소가 있는 비루비루는 산타크루스의 공항 근처에 있고 시내에서도 40분정도의 거리에 있는 도심(?)이라고 할 수 있는 곳이다. 탁아소 가까이에 뜨루피 정거장이 있는데 새벽 4시 30분쯤 되면 새소리, 닭 울음소리와 함께 뜨루피의 경적소리에 새벽잠을 깨게 된다. 이는 뜨루피



루피를 이용하여 시내로 나가던지 아니면 먼 곳으로 일을 하러 가는 노동자들을 위해서 동네를 돌아다니며 사람들을 모으고 있기 때문이다. 보통 한 차의 정원이 10명~13명 정도인데 인원이 다 모이지 않아도 일단 출발하고, 가던 길에서 손을 드는 사람들을 태우게 된다. 보통 우리 마을을 지나 신작로가 있는 큰길 까지 가면 거의 정원은 채워지고 각자의 일터까지 편안한 이동수단이 되어준다.

한 사람당 오직 한 자리만이 허용되는데 보통 봉고의자에 2명씩 앉게 된다. 아무리 덩치가 커도, 어린이를 동반한 엄마들도 오직 한자리만이 허용된다. 만약에 어린이를 별도의 자리에 앉히면 그에 해당되는 차비를 지불해야하므로 엄마들은 자신의 무릎에 2명의 아이도 거뜬히 앉혀서 간다. 그 모습이 영 불편해 보였지만 그래야 차비를 줄일 수 있기 때문이다. 뜨루피는 일정한 정류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승객이 “세워주세요!” 하고 외치는 곳은 어느 곳이든 세워주는 친절하고 편안한 교통수단이다.

에피소드 2

전 날에 비가 엄청 와서 뜨루피가 동네를 빠져 나갈지 걱정을 하면서 시내에 일을 보러 나가게 되었다. 울퉁불퉁하고 물이 잔뜩 고인 것이 거의 호수를 연상케 하는 길을 돌고 돌아서 겨우 신작로에 들어서 신나게 달리고 있는데 한 승객이 외쳤다. “빠레 빠르파보르!!!” 그 순간 차는 바로 멈추었고, 차에서 내리려고 문을 열었는데 마치 한강처럼 물이 철철 흐르고 있었다. 순간적으로 놀랐고, 그 승객이 어떻게 할지 궁금해 하며 바라보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내려서 걸어가는 것이 아닌가? 마치 물위를 걸으시는 예수님처럼…….

불평 한마디 없이. 그것도 아이를 어깨에 메고 내려가는 어머니의 모습은 참으로 위대해 보였다.

에피소드 3

볼리비아 사람들은 참으로 친절하다. 어디에서 만나든지 서로 인사를 한다. 뜨루피를 탈 때에도 타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사람이나 새로운 사람이 승차를 하면 다 함께 인사한다.

“!부에노스 디아스!”

우리 동네가 뜨루피의 시발역이지만 중도에 차를 세워서 승객을 태우기에 때론 내가 탈 자리만 있을 때가 있다. 어느 날 시내로 가는 뜨루피를 세워서 탔는데 자리가 없었다. 앉을 수 있는 곳은 운전석 뒤 즉, 짐을 놓을 수 있을 정도의 폭이 되는 작은 공간으로 앞좌석에 앉아있는 승객과 마주보고 가야하는 상황이다. 이곳도 모두는 아니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핸드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음악을 들으면서 가기 때문에 눈이 마주치는 경우는 드물지만 그래도 작은 공간 안에서 마주보고 간다는 것은 여간 멋쩍은 것이 아니었다.

봉고 안에 혼자 앉을 수 있는 자리의 의자가 접혀져 있어서 망가져 앉을 수 없는 것이라 생각하고 있었는데 기사님이 “수녀님, 거기 의자에 앉으세요.” 하기에 의자가 망가진 것 같다는 답변에 옆에 있는 벽돌을 세워서 의자 높이에 맞춰 놓고, 의자를 젖히라고 알려주셨다. 그러자 차 안의 모든 사람들이 서로 얼굴을 보면서 웃었다. 내가 웃고 있으니 옆에 앉아 있던 아저씨가 친절하게 벽돌을 세워서 의자 높이에 맞추고 의자를 펴주면서 앉으라고 했다. 이렇게 여러 사람의 친절로 안전하게(?) 앉아서 갈 수 있었다.

에피소드 4

시내로 일을 보러 나가게 되는 곳이 거의 종점에 가까우므로 뒷좌석을 애용하고 있다. 그날도 예외가 아니기에 맨 뒷자리에 가서 앉았고, 울퉁불퉁한 길을 달리는데 한 가지 문제가 생겼다. 머리가 자꾸 천장에 부딪치는 것이다. 길이 안 좋아 그런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신작로에서도 머리를 들 수 없는데다 더불어 목까지 숙이고 있어야 할 정도로 천장이 낮은 것이었다. 목적지에 도착하는 내내 나의 목은 펴 수가 없었다.

결국 이 일이 있던 뒤로 뜨루피를 탈 때 첫째, 뒷좌석에 앉지 말 것 둘째, 타기 전에 차의 높이를 확인하는 법칙이 생겼다.

에피소드 5

뜨루피를 이용하면서 알게 된 사실인데 항상 중간에서 가스 충전을 하게 되고, 그럴 때 승객들은 다 내려야하는 안전수칙 하나만은 잘 지키고 있다. 그날도 가스충전을 위해서 모두 내리고 다시 탑승을 하려고 하는 순간 내가 앉으려고 하는 의자 밑에 무언가 있음을 발견하였다. 기사님께 여쭙보니 가스통이라고 했다. 오! 하느님!!!! 내 자리



밑에 가스통이?

어느 추운 날, 바람도 몹시 불어 한국에서도 착용하지 않던 장갑까지 끼고 외출을 하는데 친절한 기사님은 먹고 버린 과자 껍질투로 창문 구멍을 막아주었다. 바람을 막으려고, 한 승객이 내리려고 하는데 문손잡이가 없었다. 문을 어떻게 여는가 싶더니 기사님이 손잡이를 승객에게 던져주자 그 승객은 천연덕스럽게 손잡이를 문 여는 곳에 넣어 여는 것이 아닌가? 차안에 사람들이 그 장면을 보고 그들도 웃었는지 모두 함께 웃었다.

우리가 보장받아야 할 “안전”이 이곳에서는 거의 사치처럼 느껴진다. 고속도로처럼 트럭들과 대형 버스가 함께 썰매 달리는 4차선 도로에 횡단보도가 없기 때문에 어느 곳에서도 내가 건너고 싶은 곳에서 건널 수 있지만 안전을 보장받기는 어렵다. 어느 곳에도 신호등이 없어 자유롭게 유턴을 할 수 있지만 사고 나는 것에 대한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

그러니 뜨루피도 아무 곳이나 세울 수 있고, 길 한복판이라도 내리고 싶은 곳에서 “파레 포르 파 보르!” 외치면 되는 것이다.

문이 제대로 열리지 않아 창문 밖으로 손을 내밀어 문을 열어야 할 상황이 되어도, 뒷사람이 내려야 할 때 앞사람들이 꿀임없이 내리고 타는 것을 반복해도 바뀔 수 없는 뜨루피는 이곳 사람들에게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교통수단이다.

늘 뜨루피를 타고 다니면서 상상할 수 없는 에피소드들이 생겨 탈 때 마다 긴장과 새로운(?)것을 기대하는데 그 희망은 늘 우리를 만족(?)시켜주고 기쁨을 준다. 오늘도 어김없이 뜨루피는 우리를 긴장시킨다. 바로 중앙선을 넘어 마주 오는 차로를 신나게 달리더니 갓길로 우리 마을의 입구에 들어섰다. “참으로 대단한 담력의 기사님을 만났구나! 하는 생각으로 무사히 목적지에 도착한 것과 무사고로 하루를 마무리 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리며 긴 안도의 숨을 내쉬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경이 사람을 변화시키듯 뜨루피의 필요성은 볼리비아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이동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요성은 볼리비아 사람처럼 우리에게도 떼려야 뗄 수 없는 소중한 이동수단이 되어 가고 있다.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

볼리비아 비루비루 탁아소
이 폴 수녀



볼리비아 파견을 앞두고 꿈을 꾸었는데, 빨강색의 글자로 “까르륵, 까르륵, 웃으면서 걸어가는 십자가의 길”이라는 문구가 선명하게 보였습니다.

꿈 덕분에 알파벳조차 모르는 것에 대한 두려움에서 잠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비루비루 탁아소에 도착했을 때 예수님께, “어떻게 당신을 따라야 할까요?”라고……질문하였습니다.

마음속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능동적으로…….” “능동적으로?”

지금의 상황 속에서 제가 할 수 있는 능동적인 행동에 대해 곰곰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어린아이의 마음이 되기로 결심하였습니다. 궁금한 것들에 대해서 묻고 또 묻고, 기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마침내 아이들을 사귄 수 있게 되었는데, 2~5살 수준이었습니다. 의사소통의 불편으로 인하여 보고, 듣고, 생각하고, 찾아보고 말하는 행동을 한 순간에 해야 하므로 제 귀는 언제나 쫓겨서 있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키우고 있는 애완견 메리처럼 말입니다.

이러는 와중에 제일 먼저 들리는 소리는 한국 발음과 비슷한 단어였습니다. 하루는 선생님들의 대화중에 “뽀뽀”라는 단어에 귀가 번쩍 띄었습니다. 너무 반가워서 뽀뽀는 한국에서 이럴 때 쓴다며 바디랭귀지까지 하면서 알려주었더니 얼굴을 찡그렸습니다. 제가 의아해 하는 표정을 하고 있으니까 “POPO”는 어린이 용어로 “똥”이라고 설명해 주었습니다. 어떤 아이가 볼일을 보아 그런 말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참으로 난감하면서도 웃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한 번은 세 살 정도의 아이가 지나가면서 저한테 “까까”라고 말하였는데, 순간 과자 달라는 소리인가 해서 “까까?”라고 큰 소리로 물어봤더니 인상을 쓰며 울어 버리는 것이었습니다. 알고 봤더니 “CACA”도 “똥”이라는 말이었습니다. 이렇게 한국 발음과 비슷한 단어만 나오면 너무나 반가워서 아는 척을 하게 되고, 이 때문에 또한 폭소를 터뜨리곤 합니다.

이곳은 아침 6시 30분부터 오후 5시를 넘어 꼭 찬 하루를 아이들과 함께 보내고 있습니다 (저녁에는 회의와 모임, 십자가의 길 기도를 합니다).

처음에는 탁아소가 아니면 저희가 낯설어서인지 아이들이 엄마를 찾으려 울곤 하였는데 이제는 저희들에게 장난을 치기도 합니다. 공동체 수녀들과 선생님들의 사랑이랄까? 아이들은 한 달이라는 기간 동안 부쩍 커버린 듯 한 느낌입니다.

마리비타 수녀는 아이들과 함께 싸이의 “강남스타일”에 맞추어 춤을 추었습니다. 이곳에서도 이 노래는 아이들이 좋아하였기에 율동시간에 한번쯤은 음악에 맞추어 춤을 춥니다. 이 때문에 마리비타 수녀는 아이들에게 인기가 아주 좋습니다. 한편 글라렛 수녀는 아이들에게 좋은 먹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먼 곳으로 시장 보러 다니는 것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는 길에 소들의 배설물을 자주 밟게 되는데, 똥 밟으면 돈이 들어온다고 하여 밟고도 좋아합니다(시장을 한 번 가려면 폐차 수준의 버스를 타고 가야하고, 꽤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비루비루 탁아소는 아이들이 함께 어우러지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떠나지 않는 생명이 넘치는 공동체입니다. 이곳에 온지 한 달이 조금 넘은 지금 저 또한 울고, 웃고, 떠들면서 예수님 안에서 성장하고 있습니다.

나아만 · 사렘다 과부의 기적이…….

중국 형주 상록촌
이 스테파노 수녀

1월 말경 아침인사를 나누던 중에 환우들이 우리가 이곳에서 생활한지 일 년이 되었다면서 밝은 모습의 얼굴로 감회가 새로운 듯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우리는 전혀 생각하지 못했는데 그리고 보니 새로운 환우들이 들어오고, 한 해가 지나갔음을 알았습니다.

2002년 소비녀 공동체가 처음 이곳에 온 이후로 함께 했던 30여 명의 환우들 중 많은 환우가 하나님의 품으로 가고 열 명 정도 남아있었는데 작년 형주시에 속한 4개의 현(縣)에서 일 년 동안 38명이 합류하게 되었고, 집과 이곳을 오가며 다니는 환우들까지 합하여 모두 54명이 신비체 가족을 이루고 있습니다.

기존의 환우들은 2~3명이 상처 치료를 받았고 그나마 미미한 것이었으나 새로운 환우들 중에 몇 명은 무척 상처가 심했습니다. 전에 있던 곳에서 제대로 치료를 받지 못해 손과 다리의 궤양이 깊어 녹색의 농이 흐르고 있었으며, 많이 나오는 농에 휴지를 두껍게 덧대고 있는 것을 보면서 많이 안타까웠습니다.

환우들의 수가 많아지자 호북성 위생청의 고위 책임자들이 방문을 했는데 우리들이 감당하기에 환우들이 많으면서 2013년 가을부터 형주시 피부병원에서 의사, 간호사, 약사 등을 돌아가면서 파견해 주었으나 환우의 상처를 보고 놀라거나 개중에는 처음 보자마자 은근 슬쩍 사라지기도 하였습니다.

환우들은 “병원 직원들은 라운딩만을 하면서도 마스크와 장갑을 착용하고, 수녀들은 마스크와 장갑도 끼지 않은 채 치료를 하고…….” 말하면서 은연중에 그들이 자신들을 두려워하는 사실에 대해 기분이 좋지 않음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우리들과 달리 두려워하고 전염에 대해 염려를 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되기에 대변하기보다는 침묵하는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01 정부 인사 방문



박물관 나들이 02

사실 저희도 새로운 환우의 상처를 처음 대했을 때 조금 놀랐으나 그 표정을 애써 감추려 하였습니다. 때론 냄새가 심하고 녹색 균이 나오는 환우들 때문에 장갑과 마스크를 사용했지만 번거로움으로 인하여 사용하지 않자 오히려 환우들이 권하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리고 보면 설립자 성 신부는 구더기가 나온 나환자에게 직접 친구(親口)하셨다고 들었는데 정말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도 몇 년 전 이야기로만 들던 구더기 사건이 있었답니다. 발이 계속해서 썩어가는 남자 환우가 있었는데 빈혈이 너무 심해서 수술도 할 수 없고, 가끔 분출형 출혈이 있어서 기도를 하다가도 뛰어 내려가야 하는 상황이 발생하여 매일 아침, 저녁으로 상처 치료를 하였습니다.

어느 여름날 귀임마리아 수녀가 치료하기 위해 상처의 붕대를 풀자 열 마리 정도의 구더기가 나오는 것을 보면서 자신 뿐만아니라 환우 본인도 놀랐다고 합니다. 어제 분명히 치료를 했음에도 하루 만에 어떻게 큰 구더기가 생겼는지 모르겠다고 하였습니다.

다음날 치료할 때 저도 같이 있었는데 정말 보면서도 믿지 못 할 정도로 구더기가 나왔습니다. 그러나 다행히 세 번만으로 그치고, 그해 겨울 고통과 이별하며 하느님의 품으로 갔습니다.

저희는 연도를 하면서 중기투성이었던 라자로가 고통을 당하다가 하늘나라에서 하느님 품에 안겼듯이 그 환우도 그토록 많은 고통을 당했으니 하느님의 품안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리리라 믿으며 기도하였습니다.

새로운 환우들은 그동안 제대로 치료를 받지 않던 상처들을 매일 치료 받고, 주사와 약을 병행하자 상처가 빠르게 호전되었습니다. 환우들은 상처의 크기가 점점 줄어들자 무척 기뻐하면서 이곳에 온 지 일 년도 안 되어 20, 30년 된 상처, 하물며 40년이 넘는 상처가 이렇게 나올 수 있게 된 것이 수

녀들 때문이라며 말씀하시지만 저희는 다만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라고 답변하곤 합니다.

지난 겨울은 몇 명의 환우가 심한 화상으로 고생을 하였는데 손가락과 발가락이 불편할 뿐 아니라 감각이 없는 상태라서 뜨거운 물에 화상을 당하곤 하는데 이상한 것은 화상 입은 상처에 나균이 침투를 하는지 그 상처가 얼마 가지 않아 나병의 상처로 변하는 것으로 인해 오랫동안 치료를 받아야만 합니다.

이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저희는 사렐다의 기적이 매일 일어나고 있음을 보았습니다. 환우들은 고마운 마음을 전하기 위해 여의치 않은 형편임에도 농촌에서 구할 수 있는 계란(유정란)을 적게는 20개, 많게는 50개까지 며칠 간격으로 가져다주곤 합니다. 그때마다 가져오지 말라고 부탁을 하는데도 어느 때는 너무 많은 양으로 고민을 하기도 합니다. 오래두고 먹을 수도 없고, 환우들에게 나누어 주고 싶지만 갖다 준 성의 때문에 되돌려 줄수가 없어 성당의 할머니들과 신자들과 함께 즐거운 나눔을 합니다.

이렇게 저희는 매일 아침 계란을 먹고 있는데, 어느 때는 계란이 떨어져서 구입하려고 하면 마치고 있었다는 듯이 계란이 들어오고, 이 기적이 3년 넘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마치 사렐다 과부의 떨어지지 않는 밀가루처럼…….

누구의 잘못도 아닌데 자신의 피부가 점점 상하고, 살점이 떨어지는 모습을 봐야하며, 가족과도 헤어져서 살아야 하는 크나큰 고통을 지켜보면서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이러한 고통을 이겨내고 늘 밝은 모습으로 우리를 대해주시는 신비체 가족들의 육체적 상처뿐만이 아니라 마음의 상처까지도 치유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오늘도 아침인사를 하면서 그들에게 다가갑니다. “다자, 조쌍호(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마드레씨따, 에르마니따!

볼리비아 산 홀리안
김 양리 수녀

마드레, 에르마나는 수녀를 가리키는 말인데 애칭으로는 마드레씨따, 에르마니따라고 부르지요. 우리에게 달려와서는 머리를 가슴에 들이대며 안기는 것은 아이들의 반가운 인사이고, 어떤 아이는 악수를 한다며 손을 잡고 마구 흔들어대지요. 이렇게 아이들과 한바탕 인사를 하게 되면 우리의 마음도 한층 밝아지게 된답니다.

산호세 지역 어린이들의 관심사는 그림그리기와 축구랍니다. 그래서 좋아하는 노래를 부르고 율동, 간단한 교리를 한 후 그림 색칠을 하지요. 이들이 기대하는 것이 또 한 가지가 있는데 그림을 완성하고 마침 기도 후에 그날의 상으로 추페틴(월남 사탕 같은 것으로 색깔이 다양하지요)을 받는 것입니다. 한 개를 받으면 웃음이 가득하고, 특별상으로 두개를 받을 땐 너무 좋아서 입이 귀에 걸리게 됩니다.



방문을 하면서 엄마는 일하러 나가고 아이들만 남아있는 실정을 알게 되어 매주 토요일 오전에 아이들과 함께 하는 모임을 마련하였는데 벌써 2년이 되어가네요. 처음엔 소란스럽고 천방지축 날뛰는 그들에 대한 통제가 어려웠으나 이제는 그림을 그리면서 색연필이 몇 개라는 것을 보고하기도 하고, 깔끔하게 마무리 정리를 하곤 합니다.

한 번은 아이들과 함께 축구를 하던 중에 공중에서 떨어지는 공을 받아 치다가 다리를 다치게 되었습니다. 뼈에는 이상이 없었으나 통통 붓고 발을 디딜 수가 없었지요. 얼음찜질을 하고 안정을 취하면서 공동체의 신세를 지었지요. 마음만큼 몸이 따라주지 않음을 실감하였답니다.

이곳은 4월 12일이 어린이날입니다. 츄페틴 한 개를 선물로 나누어 주고, 가장 좋아하는 그림 그리기를 하고, 과자 따먹기 등 게임도 하였습니다. 모두가 신나게 뛰는 모습을 보고, 함께 웃고 신나게 지내면서 이날만큼은 어린이가 된 듯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후원



선교 수녀들이여!

하느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느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일하려고 하십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참으로 중요하고 요긴한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사명도 실로 중요합니다.

선교 수녀들이여!

더욱 더 가난한 사람들에게로 가십시오.

가서 가난하게 살고, 가난한 이들과 함께 살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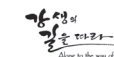
가난한 교회가 되십시오. (설립자 신부)

설립자 성 신부의 말씀에 따라 성가소비녀들은 국내에서는 물론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중국, 볼리비아, 베트남, 필리핀, 캄보디아에 선교사로 파견되어 가난한 교회가 되어 가난한 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후원 계좌 국민은행 036101-04-030207 재)성가소비녀회

TEL. 02)940-5815, 5816

※ 입금 후 반드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을 생각해서 재생용지로 인쇄합니다.

해외 선교 지역

중국 형주 상록촌

434100 中国 湖北省 荆州市 荆州区 荆秘路 51号
荆州市 皮肤病防治院(八岭山麻风康复中心)

중국 분양

032203 中國 山西省 汾陽市
汾阳三皇庙巷 39号 天教堂

필리핀 빠라나케

3822-C Mabini Dongalo Paranaque City
Metro Manila Philippines

캄보디아 바탐방

National Road No5. Romcheck 5 Village, Sangkat Rattanak,
City of Battambang Province, Cambodia

볼리비아(뿌에스토, 산 홀리안, 비루비루 탁아소)

Las Pequeñas Siervas de la Sagrada Familia
Casilla 25, Santa Cruz. Bolivia

이탈리아 엠폴리

Via del pozzo di Avane 16 50053
Empoli(Firenze) Italia

아르헨티나 한인성당

Thorne 1261 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차코 아비아 페라이 공소

Capilla N.Sara del Rosario Casa de las hermanas
3706 Avia Terai Chaco Argentina

아르헨티나 알바레스 병원

Aranguren 2701(Hosp. Alvarez)1406
Capital Federal BS. AS. Argentina

아르헨티나 에바페론 병원

Capilla del Hospital Eva Peron Nuestra Senora de Lujan
Balbin (101) 3150
B1650 NBN San Martin
BS. AS. Argentina

베트남 빈증

7, đường lo so 2- khu TDC Phu Hoa,
Khu 7, Phường Phú Hòa,
thị xã Thủ Dầu Một,
Tỉnh Bình Dương Vietnam